

## 특별기고

김하림



## [ 오피니언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가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가, 지난 4일 발표되었다. 공식 발표 전에 공개된 명단을 보고 로스쿨은 신청한 대학들을 중심으로 교육부에 대한 항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조선대학교도 장기간에 걸쳐 로스쿨을 준비했고, 작년 연말에 현장실사도 완벽하게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탈락설이 나돌았고, 마침내 탈락으로 확정되었다.

## 로스쿨 인가 불공정 게임

먼저 조선대 로스쿨의 인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주시고 지원해주신 광주·전남 지역민 여러분께 조선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어찌되었든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기본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송구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지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교육부 발표를 수용하기 어렵다. 우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로스쿨 인가가 된 명단을 보고 로스쿨은 신청한 대학들을 중심으로 교육부에 대한 항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조선대학교도 장기간에 걸쳐 로스쿨을 준비했고, 작년 연말에 현장실사도 완벽하게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탈락설이 나돌았고, 마침내 탈락으로 확정되었다.

## 로스쿨과 지역 발전

사위원회 사전에 조정되었고, 심사기준과 배점도 특정 대학들에 유리하게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사실도 이를 입증한다.

더구나 법학교육위원회가 특정 대학을 위해 사전에 정보를 유통했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그렇다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대학은 심사기준에 맞게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을 것이다. 이는 출발부터 불공정한 게임이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로스쿨의 발표를 연기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교육부와 청와대의 의견차 때문이

라고 알려졌다. 청와대는 '1 광역자치체 1 로스쿨'이라는 원칙을 고수했고,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려 한 점이 의견차의 내용이었다.

이 점에서 로스쿨 도입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로스쿨 도입의 근본적 이유는 수요자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사법고시에 의한 법률가 양성시스템이 사회 변화와 발전, 수요자의 요구 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유전부족 무전유죄'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법의 판결에 대한 불

주, 전복, 강원 등과 같은 현상이 있다.

로스쿨 도입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이는 소수화된 지역에서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로스쿨은 명예와 부를 축적하는 안정적인 직업의 차원이 아닌, 사회정의의 실현과 전문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고 이를 고민할 수 있는 현장이 교육과 인재양성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로스쿨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원을 확대하고 로스쿨 추가 선정을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것이 미망하다. <조선대 교수·대외협력부장>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법조칼럼

강세빈



## 기고

이덕수



영미법에는 법률가들의 호기심을 상당히 자극하는 제목의 사기방지법(詐欺防止法, Statute of frauds)이라는 법령이 있다.

사기꾼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해 등장해 왔고, 사기 수법 역시 줄곧 법을 앞장서 하는데, 국가에서 무슨 수로 사기를 막는다는 것인가?

위 법은 본명이 사기 및 위증 방지법으로, 1677년 찰스 2세 통치 하의 영국에서 처음 제정됐다. 그 내용은 일정한 종류의 계약들에 대해 서면에 의하여 작성되고 계약당사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에게 위 계약을 법률상 강제할 수 없다는 매우 단순한 것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계약으로는 ▲혼인을 대가관계로 체결한 계약 ▲1년 이내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는 것으로 까지 생각하는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 법법에는 사기방지법과 유사한 취지의 규정으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거나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이 있다.

법원을 찾고 있는 민원인들은 하나 같

이 법원이 진실과 정의를 발견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적어도 계약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어디까지나 계약에 대한 1차적 증거인 계약서 등을 통해서 합의 내용을 해석하고, 그러한 합의가 없거나 그 해석이 불분명하면 비로소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해석하고 보충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계약서는 비록 당사자

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데다 당사자 국가간 문화적인 이해를 넓히는 데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런 시점에서 전남농협은 법원의 협약은 뜻깊은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당당한 대한민국의 구성원이자 한국인의 아내 그리고 한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의 엄마가 된 이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온다. 의료서비스를 통해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탓에 이런 저런 이유로 건강을 쟁기지 못한 그들에게 2억여원이 넘는 진전비용을 생략한 채 무료 건강검진을 흔쾌히 해준 은행원에 대해서는 칭찬을 더울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노동부는 전남농협 여성이 결혼이민자 중 희망자는 결혼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사와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

최근 10년 새 국제결혼이 큰 폭으로

##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이행될 수 없는 계약 ▲부동산 거래계약 ▲망인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유언집행자의 계약 ▲일정 가격 이상의 물품거래계약 ▲타인의 제무나 의무 등에 대한 보증계약이 있다.

이 계약들은 일반인들의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계약 내용이 자신이 아닌 남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계약당사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사기방지법은 이러한 종류의 계약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게 하고, 당사자가 위 문서에 서명한 경우에만 그 내용을 법적으로 강제해 줄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을 보다 신중하게 체결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해 사기의 피해를 줄이기 위주의 여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흔히 계약 문화라고 불리울 정도로, 계약관계가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영미법계에서 조차도 이러한 법을 마련해 법에 무지한 일반인들의 피해를 줄여보자 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를

들 사이에 원만한 때 작성되지만, 그 목적은 당사자를 사이에 다룬이 생길 최악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정부는 '좋은 계약은 거지'라는 식이다. 다룬이 생길 만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보다는 좋은 분위기를 유지 않기 위해 주된 의무 정도만을 가볍게 확인하는 내용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되면 정작 계약 체결 전에 충분히 다루어졌어야 할 문제들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비로소 불거지게 되어 두고 당사자들이 치열하게 싸우게 된다. 이 때문에 지극히 비효율적인 사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내용 역시 다양한 상황을 예상해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당사자들 간에는 이견과 거짓의 개입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됨으로써 이롭다. 또한 법원도 복잡한 고민에 빠지지 않아 여러모로 허리를 다물어야 한다. <광주지방법원 판사>

## 둘 아닌 하나를 향한 의료협약

증가했다. 단일민족국가는 말 대신 '다문화가정'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고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지난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11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전남도내에서 서민 4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해 농촌총각 절반 가량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결혼이민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다문화가 정이 앓고 있는 문제점들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비례해 정부와 지자체, 각종 민간 단체가 지원하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기 그지없다. 그러나 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결혼이민자와 빠른 한국 적응과 함께 맞춘 한국어 교육이나 요리 강습 등으로만 채워져 이 쉽다. 이를 프로그램의 경우 결혼이민자

들이 원하는 양쪽으로 늘어난 경우가 많다.

실험 결과 개와 함께 산책한 경우 목걸이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새 무리에서 40% 이상의 새들이 감소하고 종의 다양성이 역시 35%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면에 등지를 틀고 서식하는 메추리과의 새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실험 지역 전체 생활종의 50%가 개와 함께 산책으로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개들이 아침동물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이 입증된 연구 결과다. 산책이나 등산 때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삼가야 한다. 애완견 기르는 사람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유병숙·광주시 산수2동

## 고교 졸업식장 소화기 뿌리는 행위 삼가야

졸업 시즌이다.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서로 축하하면서 학생들끼리 교복을 찢고 밀가루·계란 세례를 벼운 것을 훈히 본다.

이는 그동안 통제된 학교 생활이 오죽 담당했으며 교복까지 찢으면 해방의 기쁨을 표현할까하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 이해도 된다. 하지만 때론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보기에 민망할 때가 있다. 특히 교복을 찢어 속옷을 드러내놓고 거리를 활보하는 학생들과 밀가

루도 모자라 소화기를 뿌리대는 행동은 보기

에 믿기 어렵지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도 주게 돼 삼가야 한다. 소화기는 학교 주변 아파트 복도나 주위 건물 등에 만약의 화재를 위해 비치해 놓은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때문에 장난에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

졸업생들의 지나친 장난으로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졸업생들의 각성과 더불어 교사, 학부모들이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유점순·광주시 동구 산수2동

▲유점순·광주시 동구 산수2동

라고 알려졌다. 청와대는 '1 광역자치체 1 로스쿨'이라는 원칙을 고수했고,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려 한 점이 의견차의 내용이었다.

이 점에서 로스쿨 도입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로스쿨 도입의 근본적 이유는 수요자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사법고시에 의한 법률가 양성시스템이 사회 변화와 발전, 수요자의 요구 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유전부족 무전유죄'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법의 판결에 대한 불

## 시설

## 이명박 정부 '호남 배제' 인사 언제까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당선인 측은 실용주의 차원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기준에 크게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지만 지역 안배가 인사의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지역 안배가 인사의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용을 앞세운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선전성과 능력을 중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정지역이나 분야에 편중된 인사는 국민통합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 격차가 큰 우리 현실에서는 지역간 형평성도 무시할 수 없다.

지역사회 위기 의식은 팽배하다. 새 정부와 연결할 수 있는 인맥이 무너지면서 인사와 각종 현사업에 '호남소외'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나 내각에 인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를 수밖에 없다.

이 당선인은 새 정부의 양대 과제로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꼽았다. 그런 만큼 대통령을 보좌해 국가를 경영해갈

수석비서관 인사에 지역 안배를 고려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호남 출신은 지난번 대통령직 인수에 있어 철저히 배제됐다.

물론 지역 안배가 인사의 절대 기준

## 미분양 아파트 최대… 대책 서둘리라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로 최저치를 기록했던 2002년의 5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아파트발(發) 건설경기 침체가 우리 경제의 발복을 잡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건설교통부가 밝힌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총 11만2천 254가구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지난 1998년 8월(11만4천405가구)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광주·전남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광주·전남의 미분양 아파트는 전국 미분양의 10%를 훨씬 넘는 1만2천 396가구에 달한다. 불과 1년 새 12.5%(1천375가구)나 늘었다. 지난해 말 현재 광주·전남 각 지역에 신고된 미분양 아파트가 1만9천221가구에 달한다는 점에서 실제 미분양은 3만가구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물량과 차별화된 미분양아파트가 시장에 출시되는 시기에는 경쟁력이 부족해졌다. 특히 수도권과 차별화된 미분양 아파트는 1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건설업계도 현재의 미분양 사태가 공급과잉에서 빚어진 측면이 있는 만큼 공급량을 수요에 맞게 조절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중국에서도 관료사회의 부정부패는 심각하다. 상하이방(上海幫)의 쇠락을 가져온 2006년 천량위(陳良宇) 전 상하이 시장서의 부패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최고지도부만은 다르다. 마오쩌둥(毛澤東)은 1949년 10월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 군대를 물리치고 베이징(北京)에 입성했다. 전쟁과 도피, 암살의 위협 속에서 20여년을 보낸 단출한 그의 집 속에 마르크스나 레닌의 저작물은 없었다. 중국 역사와 최고의 고전인 '사기'와 '자치통감' 단 두 권이 있었을 뿐이다.

사회주의를 표방했지만 중국인들은 "이란 총리를 둔 우리는 너에게 행복하다"며 감격했다. 중국에 기록적인 폭넓은 이민이 내렸다. 이민의 대표적인 국제적 철학인 '이민'은 연예인 빗지 않다. 지난 2006년 원총리의 11년 된 딸과 남편과 함께 차별화된 미분양 아파트가 1만9천221가구에 달하는 것에서 실제 미분양은 3만가구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물량과 차별화된 미분양 아파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화로 세계 각국에 미분양 아파트는 매달마다 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상적인 장면은 하나가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대형 아파트단지인 후난터모우아파트이다. 이 아파트는 2006년 원총리의 딸과 남편과 함께 차별화된 미분양 아파트가 1만9천22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총리 저우언라이(周恩来)는 유교식 재상(宰相)의 전통을 보여준 인물이다. 그는 암 수술을 13